

한국미술의 피곤함을 넘어, 아나키스트의 길로

April, 2013 | 김용익 작가

page 1 of 2

한국미술의 피곤함을 넘어, 아나키스트의 길로

지난 2월, 나는 정년퇴직을 했다. 1968년 미술대학을 입학해 오늘까지 학생으로, 선생으로, 그리고 작가로 45년간 심 없이 미술을 해왔다. 저욕이 피곤하다. 정확히 말해 미술에 관해 생각하기가 피곤하다. 컨템포러리 아트진 모더니즘 미술이건 젠타이 비주츠진 생각하기가 싫다. 그러나 난 또 《아트인컬처》의 원고 청탁을 수락했다. 왜냐하면 나의 이 피곤감이 한국미술의 한 징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내가 피곤하다는 것은 미술 '안'에서 사고를 펼치기가 피곤하다는 얘기일 뿐이다. 지난해 나의 관심사는 미술 '안'에 있지 않았다. 현실 정치에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선의 패배(이 말은 물론 어폐가 있다. 그림에도 쓴다)에 결코 피곤하지 않은 관심이 있었다. 나는 지난 대선의 패배가 우리 근대 정신사의 큰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근대'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의 의미는 인민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누리고 지키며 사는 '순수하고 단순한 삶(life pure and simple)'을 향한 열망 어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시기를 뜻한다고 말해두고 싶다. 인민의 주권을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평등과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근대주의 프로젝트를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기에, 정치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값비싼 희생도 치렀던 것 아닌가! 그러나 이 근대주의 프로젝트가 허구였다는 사실을 실시간 체험하게 된 계기가 지난 대선의 패배다. 이것은 정신사적 사건이다. 우리는 '주권의 모순'을 주목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로 '순수하고 단순한 삶'이라는 근대 주권국가의 이상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공동체가 파괴돼 각각의 개인으로 파편화된 우리는 대중매체의 조작과

자본의 유혹과 집주기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린다. 때문에 선거가 허울 좋은 제도로 전락했음을 알게 됐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이름으로 인민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 모순은 제도 안에서 해결 불가능하다.

우리 시대의 예술가란 무엇인가?

돌이켜 보건대 한국 미술계에서 발생한 '모더니즘 VS 민중미술'의 대립도 결국 이 허구의 근대주의 프로젝트 안에서 각자 '자기 제한적 급진주의'를 추구했던 것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제도적 개혁에 따라 국가, 시민, 사회, 경제의 상호균형과 공존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와 국가의 대립을 강조하면서 시민 사회에 의한 국가의 침투 해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기 확대적 급진주의'로서의 아방가르드가 필요하다. 이 때 예술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도와 관습의 굴레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생리를 갖춘 예술가 말이다. 이 말이 무슨 급진적으로 체제를 뒤엎는 혁명을 시사하는 말로만 들려서는 안 된다. 노동과 자연의 착취에 관한 저항과 권위적 국가주의, 이기적 배급주의에 찌든 일상을 반성하는 조용한 영성 혁명을 포함하는 말이다.

여기까지 한 말이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것이다. 이런 원론을 각론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요즘 이러한 원론을 아나키즘에 기대어 해석해 보고, 그 해석을 삶의 작은 국면에서 실천해 보려고 있다. 모더니즘 예술가로서 자기 부정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이 사회에서 나의 예술가 됨을 긍정하고 자유와 자립과 자연을 추구하는 아나키스트의 길을 동료 예술가와 함께 모색하려 한다. 그것이 무슨 공동체가 될 수도 있으며 무슨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근대주의 프로젝트와는 불화를 이루는 그 무엇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P.S. 원고 청탁 메일 받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써진 글이다. 어조가 사뭇 비장하다. 그러나 어쩔라... 때로 비장해질 때는 비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야지.

/ 김용익 · 작가



김용익 <망구제역일체축생고혼영가> 위패, 향로, 작은 상
2010_구제역으로 희생된 모든 짐승의 외로운 넋을 달래기 위해
작가가 제작한 제단